

예인열전 I 무용 / 김은희

우리나라 최고의 안무가,
꼭 되고 싶어요



여린 듯 다부진 춤꾼

김은희의 삶과 꿈

올해 제19회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무용가 김은희. 무대에 서면 혼신을 불태우는 춤꾼이자, 김은희 무용단의 대표로서 제자들을 지도하며 분주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희씨를 만나보았다.

▶ **안녕하세요? 어제 공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중앙대학교 예술학과 예술제가 있었어요. 거기서 전체적인 안무를 맡아 지도를 했어요. 요즘 군포뿐만 아니라 주로 서울의 중앙무대에서 무용과 안무, 대회참가 등 하는 일이 많아요.

▶ **대회라면 공클 참가를 말씀하시나요?**

제가 안무한 작품으로 김은희 무용단을 이끌고 중앙무대에 올린다거나 제자들을 지도해서 서울국제무용공클 등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접 참가했던 "2010 Next 신진안무가"에서 제 작품이 'best 레파토리'로 선정되었습니다. 양재동 M극장에서 1년간 50여 작품이 올라와 그중 8개 작품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2월에 그 무대에서 축하공연을 하게 됩니다.

또 올해에는 제19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대회에서 최우수연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대회에서 '신 세석평전을 그리며'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기도 했구요.

▶ **축하드립니다. 상복이 많으신 편이네요. 언제부터 무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려서는 피아노를 배웠죠. 교회 반주자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고등학교때 언니가 무용하시는 형부(양대승 군포무용협회장)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취미로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욕심이 생기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작을 외워서 연습하고는 했죠.

▶ **가족 이야기가 나오니 그 유명한 집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집안 소개 좀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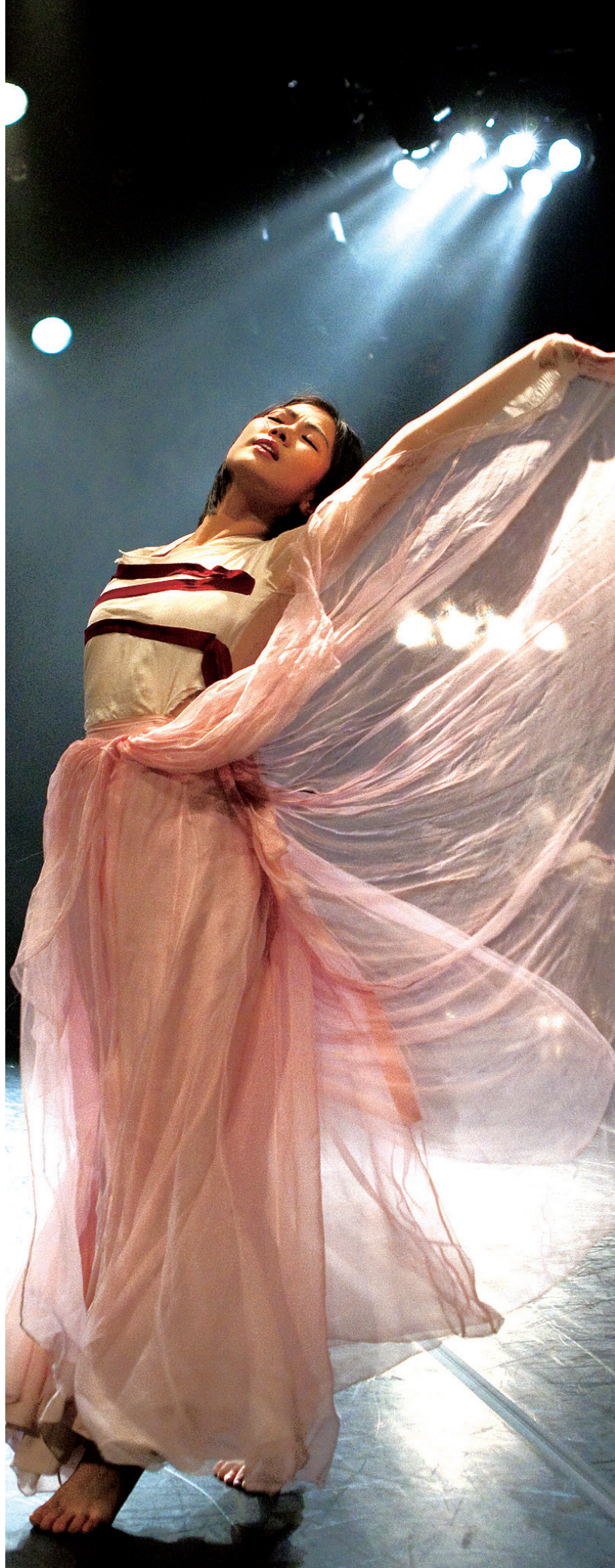
할아버님이 2남 7녀를 두셨는데 아버님이 그중 장남이세요. 큰고모님이 무용가 최승희씨의 제자였고요 둘째고모(가수 현미)도 무용을 전공했고, 언니(김은령, 가수 아일리)도 발레를 전공하고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로 활동하고 있죠. 어머니는 가수 이씨스터즈 출신이구요. 그리고 가수인 사촌언니 노사연, 요즘 탤런트로 활동하고 있는 셋째고모 아들 한상진도 있구요.

▶ **아버님의 교회엔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다 모이시니까 거의 디너쇼 수준이더군요. 요새말로 '엄친딸'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무용을 전공으로 택하게 되셨나요?**

네 청주대 한국무용과를 거쳐 이화여대 대학원 무용과를 졸업했습니다.

▶ **출발이 늦은데서 오는 어려움은 없었나요?**

무용은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야 제대로 태가 나고 무용이 원



지도 조금 알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부분은 노력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남보다 몇 배 노력했습니다.

▶ **그런 과정 중에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어떤 것이 있나요?**

25세 때(2004년) 처음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에 출전하면서 직접 안무를 짰어요. 처음 하는 것이라 밤을 새면서 될 때까지 계속했죠. 그러자니 큰 건물 안에 여자 혼자 있자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움을 이기는 것이 큰일이었어요. 그렇게 반복하다보니 나중에는 밤새우는 것이 쉬워지더라고요.

▶ **그렇게 처음 대회에 나가서 결과는 어땠는지요?**

처음 나갔을 때 결과가 좋았어요.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즐겁게 했죠. 형부(양대승 군포무용협회장)가 안무를 잘 관찰하고 보아와서, 별로 떨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무용도 스타일이 있어요. 노래도 기법이 있듯이... 무용도 저희만의 색깔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형부를 통해서 잘 배워서, 좋은 결과들이 처음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 **형부이자 스승님이신 양대승씨를 보시며 어떤 점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시나요?**

형부는 늘 '인생은 마라톤'이라면서 외길로 집중하는 스타일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무용인들은 나이가 들면 몸을 사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형부는 진도복춤을 하시며 아직까지도 직접 무대에서 펄펄 뛰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대단하죠.

또한 10년간 저를 훈련시킨다 하더라고요. 가능성을 보고 발탁해서 키워주신 거죠. 엄격한 스케줄이나 개인생활까지 관리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이 참 힘들었어요. 갇혀사는 듯 답답했구요. 하지만 사회 나와서 보니까 이제야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리 훈련시켜 주신 거죠. 10년이 흐른 지금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 **무용계로 가는 길에서 미리 가지치기를 해주신 쌤이네요. 무용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중간중간 안개가 자욱한 터널 같은 느낌이었어요. 앞이 안보이고 장래도 불투명하고...남자 친구도 없고,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안무하는 과정에서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대한 회의도 많았죠. 그럴 때에도 하루쯤 울고 나면 다시 오투기처럼 일어나곤 했어요. 뭐든 끝까지 하는 성격이라 마무리는 지어야지 하는 생각에 다시 열심히 하고 나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곤 했어요.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 **예술가에게는 늘 있는 시간들이지요. 그런 순간을 극복하는 것이 예술가의 길이 아닐까 싶네요. 현재 활동하면서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중간 정도는 이루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은 제가 안무한 작품을 중앙의 여러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군포에서 작품을 만들어 싹을 틔우고 잘 다듬어서 전국무용제, 서울무용제, 신진안무가 등의 굵직한 무대에 지속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군포는 제가 무용을 하면서 살게 되어 10년이 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군포의 무용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군포의 문화발전을 위해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안무 잘하시는 분들처럼 좋은 안무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상상해봐요. 사람들이 티켓을 사서 공연도 보러오고... 무용이라는 장르가 어렵지만, 좋은 춤과 안무로 많은 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저의 춤을 보면서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공연을 올리는 것이 꿈이에요.

▶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야나 성취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없게 마련이다. 김은희씨의 경우도 청소년기 이후 개인생활을 모두 반납하다시피 하고 오직 춤에만 몰두한 기간이 있었기에 오늘 한사람의 우수한 무용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 무대에서의 그를 보면 가려진 몸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놀랍다. 이제 그녀의 무용세계가 더욱 원숙해져 우리나라의 무용계에 큰 획을 그을 뛰어난 춤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대담 진행 및 정리, 사진 최남희 (『군포예술』 편집인)

스스로에게 안주하지 않는
자유로운 예술혼

실험과 변화를 추구하는

타악연주자 유형렬

'난타'의 성공 이후로 타악을 주조로 하는 공연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이 년버벌 타악 퍼포먼스 '야단법석'이다. 공연명이자 팀이름으로 굳어버린 야단법석의 공연자로 활동했던 국악인이자 타악연주자 유형렬씨. 군포에 터 잡고 공연기획자로서 늘 새로운 시도를 통해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그의 바쁜 시간을 살짝 엿보았다.

▶ 언제 처음으로 국악을 접하게 되었는지?

고등학교 때였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다보니 무언가 즐겁고 신나는 일을 찾고 싶었죠. 그러던 중 씨름활동으로 택한 것이 풍물부였어요. 밴드부도 있었지만 우리 것이 더 좋을 듯해 배우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전공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진로를 위한 고민을 하다가 이 길이 내 길이라 생각되어 백제예술대 국악과로 진학했습니다.

무용, 판소리, 기악 등의 부문 중에서 기악 즉 타악을 전공으로 택하여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중 최양순 교수님은 무용과 타악을 접목하여 공연을 하셨는데 그 분을 따라 많은 공연에 참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조병호 교수님께서는 진안 좌도굿을 정식으로 배웠어요. 제대 후 대학 때 은사였던 방승환 선생을 만나 그 분이 운영하는 '전통타악연구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정동극장 예술단장을 지내기도 하셨던 그 분과 함께 합숙하면서 본격적인 풍물을 다시 배워나갔어요. 단순히 악기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도가 포함된 국악 수업을 받은 거죠.

▶ 그곳에서의 경험이 스스로에게 어떤 작용을 했나요?

처음에는 그냥 연주하기만 했는데, 그 때 이후로 창작에 대한 의욕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1998년 제대를 했는데, 그 이듬해인 1999년 '난타'가 정동극장에서 초연되었죠. 타악퍼포먼스라는 생소한 장르의 공연문화가 선을 보인 것입니다. 그 후 우여곡절을 거치며 난타는 성공적인 문화브랜드로 자리잡아 갔고, 이에 고무되어 타악의 다양한 공연형태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문화계의 분위기에 많은 자극을 받은 셈이에요. 이렇게 돼서 2000년도에 연강홀에서 처음 발표된 작품이 '야단법석'입니다.

▶ 공연물로서의 '야단법석'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원래 '야단법석'이란 말은 불교용어입니다. 들판에서 법문을 설파한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년버벌 타악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어요. 대사가 들어가지 않은 공연으로서 풍물과 무용 그리고 소리가 함께 어우러진 퓨전 국악 공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초연 이후 관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2005년도까지 계속 장기 공연을 했어요. KBS 르브 "제3지대"에서도 우리의 공연을 취재하기도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작품명이었는데 지금은 단체명이 된거죠.

▶ '야단법석' 공연이 그토록 성공을 거둔 이유에는 어떤 점이 있다고 보세요?

1978년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처음으로 조직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사물놀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죠. 사물놀이란 말도 원래는 불교용어입니다.

사물놀이에는 이야기구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신명나게 두드리기만 하는 것이니까요. '난타'의 성공요인은 여기에 스토리가 들어 있다는 점이에요. '야단법석'도 불교적 소재를 다룬 이야기 구조가 있어요. 그런 줄거리를 또 다른 시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동자승이 극락으로 가기 위한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망, 고뇌, 고행 등을 다룬 작품인데, 종교적인 색채 때문에 일반인들에



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었는데도,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끝부분에 가면 대부분 눈물을 글썽이곤 했어요. 또한 공연이 끝나고 색종이를 뿌릴 때는 모두들 기립박수를 치는 것을 보면서 '아, 떴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었죠. 그럴 때면 살아있는 것 같고 생동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 5년여 동안 공연을 계속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나요?

성공에 대한 보람과 기쁨도 많았지만 같은 패턴의 반복이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도 생겨났구요. 5년 동안 같은 공연을 계속해오면서 아마 정신적으로 지치기도 했겠죠. 새로운 것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쉬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내 스스로 정체된 듯한 상황에서 벗어나고도 싶었을까요. 이런 저런 생각들 끝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전통타악연구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군포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전에 군포국악협회의 품물때 '누리'에서 장구를 치던 김정원 씨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가야금을 연주하는 같은 국악인인 집사람(김문선씨)을 만나 결혼하여 처음엔 시흥에서 살다가, 장기적으로 몸담고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이곳 군포로 오게 되었죠. 당시 세종국악관현악단에 있던 아내가 국악 실내악단 '비상'을 창단하면서 군포국악협회와도 연결이 되어 회원으로 가입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타악그룹 '좋은 친구들'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당면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죠. 단순히 연주만을 위한 그룹은 유지하기가 어렵고, 기획사 수준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 힘든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현재 '좋은 친구들' 단장을 맡고



있다 보니 경제적인 압박이 가장 큼니다.

▶ 공연 기획을 하면서 느끼는 요즘의 공연문화의 트렌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차로 규모의 크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시각, 청각, 감성의 크기를 요구하죠. 그러다보니 대북이나 연극적 요소가 가미되고 거기에 영상까지 첨가된 형태의 대형 공연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관객이 요구하는 공연 형태를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현재 큰 행사의 오프닝이나 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대형 공연의 아이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칼라쇼'라는 공연을 들 수 있는데요, 색채라는 것이 일종의 심리적 치료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LED소재를 사용하여 악기에 색깔 즉 빛을 입혔어요. 의상이나 악기마다 다양한 색깔로 표현하여 색채와 타악을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될까요?

한국의 정서는 내고 달고 맺고 풀고 하는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걸음걸이나 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기승전결의 구조가 존재하죠. 이러한 우리의 정서에 이야기 구조를 포함시키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사실 걸음만 대형화하면 자칫 이벤트 적인 방향으로 빠질 수도 있구요, 예술적인 측면을 고민해야죠. 외형적으로도 새롭고 신선하며 내적으로도 우리 고유의 정서를 잘 담아내어 깊이 있는 아이템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군포의 문화예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개인적으로 군포를 참 좋아합니다. 대야미 들판은 시골의 정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드문 곳입니다. 단순히 거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국악예술이 꽃을 피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신생도시라 아직은 뚜렷한 문화전통이 없지만 그런 여건은 다른 신생도시와 다를 것이 없다. 성공한 축제들을 보면 아이디어 싸움이라 생각한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성공하면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그 속의 깊이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거침없이 어떤 질문에도 뚜렷한 견해를 펼쳐나가는 그를 보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아직 젊은 세대의 연주자로서 직접 공연을 만드는 기획자로서 그는 새로운 시도를 위해 도구나 무대 장치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전통적인 요소에 현대성을 가미해 예술성과 흥행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그의 시도가 관객과의 행복한 만남을 이루어 내리라 기대해 본다.

대담 진행 및 정리 최 남 희(『군포예술』 편집인)